

“인내와 노력으로 지내온 투병생활!”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당뇨병을 발견한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충실히 뛰어나가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반문해 보는 일은 적은 것 같다.

오늘 건강소식이 만난 윤경철씨(54세, 인천시 남구 송의동, 전자회사 경영)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보통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적인 미와 자연을 사랑했던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



이젠 병을 이겼죠”

윤경철 씨

에 대한 건강검사 때 뜻밖에도 당뇨병을 발견하면서, 이제까지 열두에 두지 않았던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자식처럼 가꾸는 화분들의 강한 생명력속에서, 건강이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목표이며, 또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1년여의 투병생활을 견뎌왔다.

이제는 건강한 상태가 된 그는, 건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바닷내을 속에서 인천인의 강한 생활력을 느끼면서

윤경철씨를 찾아간 공휴일 아침은 좀 쌀쌀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비릿한 바닷내음이 다가왔다.

그것만으로도 눈내리는 겨울바다의 아름다움을 연상케 되고 그래서 시 한수쯤 읊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가슴깊이 스며들었다. 고운 향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릿함이 생활력 강한 인천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것같아 흐뭇하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때문일까. 화분을 돌보다가 기자를 맞이하는 윤경철씨의 웃음은 매우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서와요. 출조?』하며 부인 진경자씨가 내어온 녹차의 훈훈한 향기 속엔 따뜻함과 한국적 정겨움이 가득했다.

『화분이 내 막내자식이지요. 이것들을 만지다보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금방 건강해지는것 같아요.』라는 윤씨의 말에 실내를 둘러본 기자는 잘가꾸어진 수많은 화분들에 감탄의 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생각하면서 회사직원 근로자 건강 진단때 자신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윤씨는 말한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건협 인천지부

식물의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윤경철씨. 그의 행복한 생활에 끼어든 “병”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1년전 겨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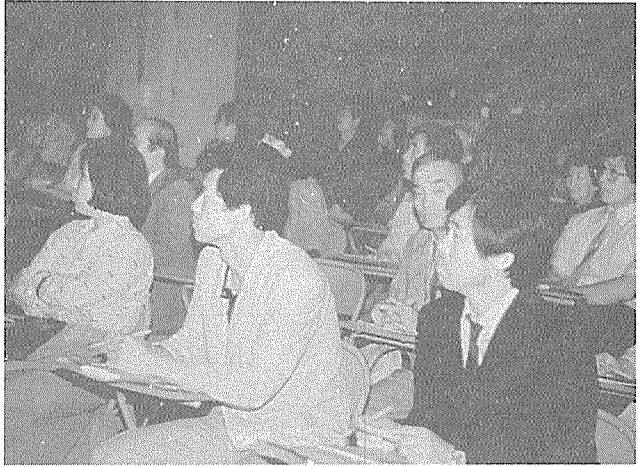
『우리 회사 근로자들 정기 건강 검사를 하기 위해 적당한 곳을 찾다가 마침 친구로부터 건강관리협회의 존재를 알았죠. 그 친구가 건협 서울지부에서 검사를 받았었다면서, 소개를 하더군요. 근로자들이 큰 불편없이 사업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처음엔 서울지부에 검사신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건협 인천지부를 알려주었어요.』라면서 윤씨는 인천에서만 50여년을 살았으면서도 인천에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 웃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교훈 따라 받은 검사

『인천지부와 연락이 되어서 우리 회사식구들 검사를 받을 때 저도 같이 검사를 받았습시다. 워낙 건강했으니까 무슨 이상이 있겠나 싶었지만, 나이도 들고 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생각나고 해서...』라고 윤경철씨는 말한다.

『20여년을 한집에서 살았지만, 감기 한번 앓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살이 좀 올랐었지만, 풍채좋은 사장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라는 부인 진경자씨의 말에 윤씨는 그냥 웃어보였다.

▶ 당뇨병 교실 방문,식이요법 실천, 자료수집 등 그의 투병 생활은 피나는 노력으로 계속되었고 그는 이제 승리자가 되었다.



『어디 그뿐이에요. 저는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생활이 부지런하고 규칙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산보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또 퇴근하셔서 집에 오시면 화분 가꾸시고... 일요일엔 가까운 곳이라도 꼭 등산을 가셨어요. 큰 일이 없는 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생활을 반복하셨죠.』라며 진씨는 그렇게 빈틈없는 그가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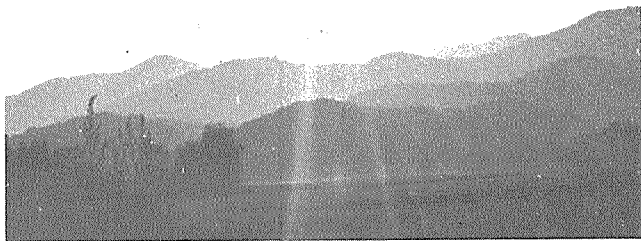
한편 윤경철씨는 『건협 인천지부 직원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검사를 하면서도 물어보는 말에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성실하게 대담해주는 모습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격려도 해주었다.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당뇨병이라니...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폭이 넓고 긍정적인 윤씨를 당황하게 한 것은 검사 결과 통보서였다.

『당뇨기가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결과가 제게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직접 건협 인천지부를 찾아갔습니다. 협회에서라도 정상인의 경우도 당이 검출될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 재검사를 해주더군요.』

그러나 그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윤씨는 말한다.

『결과는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식전 공복 상태에서도 당이 검출되었다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더군요.』라며 윤씨는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제가 왜 당뇨병에 걸려야 했는지 말입니다. 또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라며 윤경철씨는 아직도 건강하신 노모께 불효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그래도 혹시하는 생각에 친구가 하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결과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었죠. 다행히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통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윤씨는, 자신의 생활에 있어 최대의 불행이었다고 표현한다.

인내와 끈기로 지내왔던 투병생활

그러나 윤씨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병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니까...

그는 좀더 적극적인 투병생활을 위해 서울의 모 병원에서 실시하는 당뇨병 교실을 찾아가 식이요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관련되는 책들도 닦치는대로 읽고 주위에서 투병중인 당뇨병 환자도 찾아가 실제 체험을 보고 듣기도 했다고

한다.

『이제 당뇨병에 관한 한 박사는문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은 병을 이겨나가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참 어렵더군요. 처음엔 갑자기 식사의 양도 줄여야 했고 과일도 한쪽 신경 써서 먹어야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또 당뇨병에 일단 걸리면 다른 병에 걸리기도 쉽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해본 일이 없는 감기까지도 조심해야 했으니...』라며 윤씨는 투병생활에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그 피나는 노력의 결과는 이제 결실을 보았다.

『이제 웬만해서는 당이 나오지 않아요. 또 처음에 힘들었던 식이요법도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라며 너그러운 웃음으로 얼굴을 가득 채운다.

삶의 가치와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가족들의 수고가 많았죠. 모두들 저를 위해 식생활 패턴을 바꾸었고, 항상 옆에서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표나지 않게 쏟아준 사랑은 죽어서도 못잊을 겁니다.』라며 부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다. 그는 또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나 싶습디다. 처음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엔 함께 앉아 식사하기도 어렵더니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아이들이 제게 쏟아준 관심에 놀랐습니다.』라며,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크게 웃었다.

윤씨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은 죽어가는 화분 때문이었다고 한다. 거의 죽다시피 해서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난초분을 그래도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해 2주일을 살피주었던 그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파릇하게 되살아나는 잎을 발견했다.

아프다는 소리한번 못내고 견디어야 했을 그 여리디 여린 난초의 투병생활을 생각하며 그는 산다는 것의 가치와 건강의 중요함을 더더욱 절감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들으며, 언젠가 읽었던 “식물로 생각한다”란 책을 기억해냈다. 저자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식물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면 그것을 느끼고 더 강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 책의 골자였다.

하찮게 보이는 식물이 그러할 진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는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건강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관리협회가 해야 할 역할임을 새삼 다짐하게 된다.